

20C초 몽유록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

이 병 직*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신국민 양성과 평등주의의 모색 :
몽배금태조 |
| 2. 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대응 논리 | 3. 현실 대응 논리의 의의와 한계 |
| 1) 제도 개혁과 일제의 침탈 항거 : 만하몽유록 | 4. 마무리 |
| 2) 아시아 연대론과 구습 개혁 :
몽견제갈량 | |

국문초록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서세동점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담론이 무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모를 1900년대 무렵에 창작된 몽유록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현실 인식의 방식은 몽유담 내에서 작자의 분신인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내세워 대화와 토론으로 현실의 위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선 내부의 부조리한 측면과 외부의 서구 열강 및 일제의 침탈이었다. 이 시기 지식인은 각자가 처한 위치와 조건에 따라 그 대응 양상을 달리하여 각 작품에 구체화시켰다. 김광수는 일본의 침탈에는 매우 비판

* 금성고등학교 교사

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근대 서구 문물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그 장점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유원표는 세계 정세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였으며, 일본의 한국 침탈을 경계하면서도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였다. 박은식은 국권 상실을 완전히 경험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한 결과 교육을 통하여 신국민을 양성하고 평등주의를 모색하였다.

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활동에 따라 현실 인식의 내용과 그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학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라든지 대화를 통하여 독자를 설득하려는 서술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몽유록, 현실 인식, 현실 대응 방식, 근대화, 아시아 연대론, 신국민

1. 들머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대한제국은 안으로 누적되는 봉건적인 문제와 밖으로 계속되는 제국주의적 침탈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反봉건 개혁과 反외세 투쟁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문학 역시 현실의 복잡하고 다기한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내려 애쓴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이 시기 내외의 절박한 시대 문제를 해결할 이념과 방향 제시를 위한 효과적인 양식으로서 새롭게 인식된 갈래가 몽유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 볼 <만하몽유록>, <몽견제갈량>, <몽배금태조>는 모두 이 시기 위기 현실과 관련하여 창작된 몽유록 형식의 작품이다.

<만하몽유록>은 晩河 金光洙(1883~1915)가 1907년 무렵 창작한 소설이다. 여기에는 근대사회로의 모색을 꾀한 계몽 담론, 일제의 침탈을 고발하고 항거하는 내용, 민족공동체의 생존 방안 모색 등 작가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몽견제갈량>은 밀아자 유원표(1852~1929)가 1906년 무렵 창작한 작품으로, 몽유자인 밀아자와 제갈량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東土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내용이다. <몽배금태조>는 무치생 박은식(1859~1925)이 1911년 무렵 망명지에서 쓴 작품이다. 서술자로 등장하는 무치생이 한일합방으로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후 만주로 망명하여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면서 꿈에 금태조를 만나 위기 현실 극복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 연구 성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만하몽유록>에 대해서는 작자의 생애와 주제 검토,¹⁾ 작자의 역사 현실 대응 고찰,²⁾ 작품 분석을 통한 개화기 지식인상의 면모 고찰,³⁾ 삼입시와 유람의 기능,⁴⁾ 창작방법⁵⁾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작품을 번역한 주해서의 성과도 있다.⁶⁾ <몽견제갈량>에 대해서는 작자의 인적 사항 및 작품의 서술 체계와 특징 연구,⁷⁾ 창작의도와 주제의식 연구,⁸⁾ 대외인식의 면모 연구⁹⁾ 등이 대표적

-
- 1) 김기동, 「만하몽유록의 연구」, 『한국문학연구』, 10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7 ; 조상우, 「만하몽유록」 연구, 『한문학보』 제4집, 우리한문학회, 2001.
 - 2) 장효현, 「애국계몽기 고전장편소설의 역사현실 대응-〈鄭氏福善錄〉과 〈晩河夢遊錄〉」, 『어문논집』33,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4 ; 이병직, 「만하몽유록」 연구, 『문창어문연구』 제41집, 문창어문학회, 2004.
 - 3) 조용호, 「김광수의 <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제11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 4) 서신혜, 「만하몽유록에서 작시와 유람의 기능」, 『어문논총』 4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5) 김미선, 「근대 전환기 몽유 양식의 창작방법의 변주 양상」, 『한국언어문학』 제72집, 한국언어문학학회, 2010.
 - 6) 박종훈·서신혜 역주, 『만하몽유록』, 한양대 출판부, 2005.
 - 7) 배삼주, 「유원표의 『몽견제갈량』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8) 심재숙, 「<몽견제갈량>의 창작의도와 주제의식」, 『우리어문연구』 18집, 우리어문학회, 2002.

성과로 지적할 수 있다. <몽배금태조>에 대해서는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전반의 연구,¹⁰⁾ 작품 분석과 의미 연구,¹¹⁾ ‘서사-문학적 논설’로써의 특징 연구,¹²⁾ 현실인식과 이상세계에 대한 특징 연구¹³⁾ 등이 문학적 성과로 지적된다. 이 밖에 역사학계나 교육학계에서 박은식의 사상에 대해 이룩한 성과도 많이 있다.

몽유록 전반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시기 몽유록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신재홍, 정여울, 황재문 등의 성과가 대표적이다. 신재홍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17세기 및 20세기 다른 몽유록과 비교하여 이 시기 몽유록 작품의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을 검토하였으며,¹⁴⁾ 정여울은 <몽견제갈량>, <몽배금태조>, 신재호의 <꿈하늘>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몽유양식이 가진 수사학적 특이성을 밝히고, 담론의 배치와 계열화에 따른 의미 변화양상을 논의함으로써 양식적 실험의 의의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¹⁵⁾ 황재문은 애국계몽기 몽유록을 힘의 윤리로 접근하여 <만하몽유록>은 힘의 윤리를 부정한 작품이며, <몽배금태조>는 힘의 윤리를 받아들여 현실극복의 방안으로 삼은 것이라 하였다.¹⁶⁾

이러한 연구 결과 작자의 생애와 사상, 작품과의 상관성, 작품의 구조 분석을 통한 의미와 주제의식 고찰, 몽유록이 지닌 수사학의 특이성과 담론의 특성, 소설사적 위상 등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개

9)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대외인식의 단상-『몽견제갈량』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23집, 민족문학사학회, 2003.

10) 류양선, 「박은식의 사상과 문학」, 『국어국문학』 제91권, 국어국문학회, 1984.

11) 강준철, 「몽배금태조 연구」, 『어문학교육』 제25집, 한국어문교육학회, 2002.

12) 정선태, 「『국민정신』 형성의 정치적 상상력-『몽배금태조』론」,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 소명출판, 2003.

13) 조상우, 「<몽배금태조>에 표현된 현실인식과 이상세계」,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14)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15) 정여울, 「20세기 초 몽유양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

16) 황재문, 「애국계몽기 몽유록과 힘의 윤리」, 『규장각』 3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별 작품의 특징이나 몽유록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특징이 상세히 밝혀졌으나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반영론의 관점에서는 아직 규명되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이 시기 몽유록은 모두 당대의 현실을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시대에 창작된 서로 다른 몽유록에서 지식인들이 위기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였으며,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파악하는 것은 각 몽유록 작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비교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만하몽유록>, <몽견제갈량>, <몽배금태조> 등 3편의 몽유록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이 시기 지식인들이 현실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였으며,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위기 상황이 복잡했던 만큼 그 대응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봉건 반외세라는 1900년대에 이들 지식인들은 ‘애국과 계몽’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인식의 차원을 공유하지만, 계몽의 내용이나 대상 및 방법에는 그 차원을 달리하면서 대응한다. 2장에서는 이 시기 지식인들이 위기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성향이나 세계관 및 창작 시기가 다른 만큼 현실에 대처하는 태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의의 및 한계에 대해 언급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대응 논리

이 시기 몽유록 작품에서 언급되는 위기 현실의 내용은 조선 내부의 불합리한 모습과 서구,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다룬 외적 문제이다.

신분이나 세계관 및 처한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 몽유록 작가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내부적인 병폐는 봉건적인 신분 문제를 비롯하여 왕조의 이념인 성리학이 지닌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만하몽유록>에는 지역 차별에 따른 인재 등용의 제한, 五賊이 임금을 능멸하는 문제, 백성들이 학정을 피해 서간도나 북간도로 이주하는 문제 등이 언급되어 있다. <몽견제갈량>에는 선비들이 유교 경전의 황권책자만 읽고 암송하는 紙上空文·脣上空談의 학문 태도를 비롯하여 제도, 법률, 풍속 등 부조리한 면모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몽배금태조>에는 소중화의식에 침윤된 중국 중심의 역사관과 교육의 문제, 허례허식이 만연한 성리학 중심의 사상 체계, 자립심과 분발심이 결여된 사고방식, 현실 안주와 관리들의 구태의연한 태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이 처한 대외 현실을 파악하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광수는 몽유자가 되어 한국과 중국의 여러 곳을 유람하면서 세계를 이루는 六洲의 명칭, 문명 개화 시대의 편리한 문물, 각 나라의 규모와 경쟁력, 정치 형태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러한 면모는 작자의 현실 체험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독서 등 간접 경험에서 이루어진 만큼 현실 인식이 피상적이고 낙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유원표와 박은식은 제갈량과 금태조라는 과거 인물을 대화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실제와 거리가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파악한 세계 정세와 당대 현실은 대단히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다. 유원표는 작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밀아자의 입을 통해 작품 곳곳에 서양 및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본질을 제시하여 두고 있으며,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의 야욕과 조선이 처한 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박은식 역시 현실을 파악한 모습이 유원표의 그것과 비슷하다. 즉 오늘날은 문명과 지식이 발달할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살벌하며, 약육강식을 세상의 법칙으로 삼고 우승열패를 천연(진화)으로 인식하여 남의 나라와 종족을 멸하는 것을 정치가의 책략으로 삼으며,

소위 평화재판이니 공법담판이니 하는 문제는 강권주의와 우승자의 이 용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¹⁷⁾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결국 위기 현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일제에 의해 지배받는 처지가 되고 만다. <만하몽유록>에는 고종의 선양과 군대 해산(1907년)이, <몽견제갈량>에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모습이, <몽배금태조>에는 무치생이 경술국치 이후 만주로 망명한 뒤의 통한의 현실을 묘사한 대목이 각각 언급되어 있다.

그러면 위기 타개를 위한 지식인의 현실 대응 논리는 어떠하였는지 개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제도 개혁과 일제의 침탈 항거 : 만하몽유록

김광수는 봉건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문명개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근대 문명의 장점 및 정치제도의 모습을 작품에 서술함으로써 근대화를 촉구한다. 예컨대 작품에서 기선, 기차, 전보, 전화, 관수기, 비공구, 자명종, 유성기, 자직기, 화용침, 대포, 거함 등과 같은 근대의 새로운 문물이 지닌 편리함과 이로움이 소개되어 있다.¹⁸⁾ 세계 각국은 이 같이 정묘하고 편리한 기계를 사용하여 근대화를 진행시킴으로써 국가의 부강함과 재산의 풍요로움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개화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김광수가 다른 글에서 직접 언급한 적이 없지만, 편리한 기계라든지 물품의 제도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물의 필요성을 소설을 통해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공화정치, 헌법정치, 군주정치의 특징을 각각 서술하고 그 정

17) 박은식, <몽배금태조>,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암박은식전집』 제4권, 동방미디어, 2002, 176쪽. 이하 작품명과 쪽수만 제시함.

18) 金光洙, <만하몽유록>, 『晩河先生文集』(한국역대문집총서 376, 경인문화사, 1990, 35~36쪽 참조. 이하 『문집』이라 표기하고 해당 쪽수만 제시함.

치를 행하는 나라를 언급한 뒤 셋을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정치제도나 국가형태는 이미 1880년대 한성순보나 독립신문에 자주 소개되었기 때문에 작자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²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자가 몽유자의 입을 빌려 군주정치를 비판하고 공화정치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주정치는 제왕이 모든 것을 독단으로 통치한다는 점, 이를 행하는 나라는 난신적자가 대대로 생겨나 아침에 시해하고 저녁에 찬탈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정치는 그 힘의 원천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표를 정기적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하였다. 중국 및 우리 역사에 정통한 작자로서는 군주제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대안으로 작자가 생각한 것이 공화정치가 아니었던가 한다. 그렇기에 치세라고 일컬어지는 요순의 정치보다도 공화정치가 더 낫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물론 작자는 서구의 공화정치를 우리 나라에 바로 수용하고자 함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작자는 공화정치를 희망하고 있더라도 그 근본이 되는 바탕에는 삼강오륜과 孝悌忠信이라는 유교적인 관념과 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삼강오륜에 근본을 둔 가르침과 孝悌忠信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선인의 천거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한다면 세상에는 버려지는 인재가 없을 것이며, 백성의 살림살이는 더 윤택해진다고 하였다.²¹⁾ 서구의 정치형태에다 동양의 사상과 윤리를 강조한 복합적인 정치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가 행해지고 백성들이 상부상조하여 부지런히 일한다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고 작자는 본 것이다.

다음으로 외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만하는 일제의 침탈에 대해서는 하늘에 상소하는 방법, 실력 양성의 준비론, 의병 투쟁의 무

19) 『문집』, 36~37쪽 참조.

20) 이들 국가형태에 대해서는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0, 164~188쪽 참조.

21) 『문집』, 75~76쪽 참조.

력 응징론 등 각가지 방책을 제시한다. 몽유자가 천상계를 유람한 뒤 일제의 만행을 상제에게 고발하며, “바라건대 상제께서는 우리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어 백성들이 서양 오랑캐에게 곤궁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휼하여 몇몇한 윤리를 중화에 밝히시고, 저해를 끼치는 적에게 벌을 내리는 징험을 보이어 邊國에 재앙을 내려 주소서.”²²⁾라면서 하늘에 호소한다. 하늘[天]은 모든 존재의 안위를 관장하는 절대적 존재 혹은 도덕성의 근원으로 상징되는 개념이다.²³⁾ 인간이 마음대로 거역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天의 명령은 그만큼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이러한 생각은 유학의 전통에 함유된 것으로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는 보편적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유학적 분위기에서 生長한 작자가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적을 상대할 수 없는 처지에서 상제에게나마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작자의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대한제국때 순절한 민영환과 조병세를 地府에서 만나 앞날에 대처할 방안을 두고 담론을 펼친다. 현재의 우리 상황이 서양 및 일본에 비해 약하므로 수치스럽지만 그 욕됨을 참고 저들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 국력을 양성해야만이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요지이다.²⁴⁾ 나아가 일제의 정치경제적 위협과 침탈에 맞선 가장 적극적인 대항 방법으로 의병항쟁을 주장하기도 한다. 작자로 대변되는 서술자인 ‘나’가 최익현에게 “그 決勝의 방책을 일러 주신다면 제가 고국에 돌아가 선생의 말씀으로써 의병들을 지휘하여 오랑캐를 물리칠 것이니 계획이 장차 무엇입니까?”²⁵⁾라고 묻는 대목에서 일제에 대

22) 『문집』, 95쪽. “惟願上帝，眷于東土，無使下民，困於西戎，恤此矜憫之情，明彞倫於中華，徵彼賊害之罰，降災殃於邊國。”

23) 박학래, 「天人之際, 인간 삶의 지표와 이상」,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140쪽.

24) 『문집』, 147쪽. “彼強我弱，含羞忍辱，密其交際，與之開化，十年生聚，十年教訓，交換知識，卒業器械，財源融通，人民活動，然後可以禦侮，可以復讐矣。”

25) 『문집』, 149쪽. “畫其決勝之策，則身歸故國，必以先生之言，指揮義徒矣。必破仇賊，則計將安出?”

항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의병투쟁임을 알 수 있다. 작품내에서 일제의 만행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1895년에 일어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과 단발령, 그리고 1907년에 일어난 고종의 양위 및 군대 해산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전후하여 수많은 인사가 순절하였고, 때로는 의병으로 투쟁 활약하였다.²⁶⁾ 작자는 이러한 사정을 작품에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결국, 작자는 작품에서 내적으로 조선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대 문명의 장점을 소개하여 근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나아갈 방향은 유교적 질서를 중시하면서도 공화정치를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 일제의 침탈과 만행을 고발하며 일제를 응징하고자 하는 정책을 읊소, 준비론, 의병 항쟁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아시아 연대론과 구습 개혁 : 몽견제갈량

유원표는 <몽견제갈량>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처한 위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구습을 개혁하고, 외적으로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서세동침을 막아내야 한다는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한다.²⁷⁾

아시아 연대론은 19세기 후반 서양의 동양 진출을 계기로 서양을 타자화하면서 아시아의 문명적·인종적 근친성과 운명공동체성을 입론의

26) 조동걸, 「의병전쟁의 특징과 의의」,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 2001, 176~186쪽 참조.

27) 밀야자의 아시아 연대론 주장은 다음과 같다. “近今 西勢東漸 黃種白人의 種族을 各自愛護 各其樹黨 此時에 黃種의 韓日清 三國人心이 裂缺 不相和睦이면 是는 骨肉相殘과 無異 者 | 니 韓日清 政府의 意志方略이 如何 홀는지 微嫌과 細利는 切勿思念 大勢와 巨利를 各自 計圖 者 | 今日也 | 니.” (劉元杓, <몽견제갈량>,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역사·전기소설』9, 아세아문화사, 1979, 93쪽. 이하 작품명과 쪽수만 제시함)

근거로 삼아 아시아를 하나의 정치단위로 설정하여 아시아의 연대와 단결 혹은 통합을 주창하는 언설이다.²⁸⁾ 그런데 아시아 연대론은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 동상이몽식으로 해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²⁹⁾ 단적인 예로 일본의 森本藤吉은 서양을 핑계로 하여 한국병합과 중국 대륙침탈을 위해 이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였고,³⁰⁾ 중국에서는 아시아주의가 중국 병탄주의의 은어라면서 일본의 침략성을 비판하고 있으며,³¹⁾ 우리의 경우 1880년대 초에 지식인 사회에 처음 소개되어 호감, 지지, 비판 등 그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³²⁾ 문제는 밀아자가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한국병합과 대륙침탈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진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 주장을 왜 되풀이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밀아자가 세계 정세의 판단 방식과 위기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점에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28)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우익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2, 17쪽 참조. 아시아 연대론은 아시아주의, 아시아 연대주의, 대아시아주의, 동양주의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한겨레신문사, 2005)에 연구 현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9) <몽건제갈량>을 분석 논의하는 연구자 역시 그 해석이 다양하다. “일본의 변질된 아시아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 연대의 모색”(배삼주, 앞의 논문, 43쪽), “이상주의적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자주 독립을 유지하는 대등한 관계로 설정”, “황인중 단결론은 한국과 중국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방책”(심재숙, 앞의 논문, 197쪽), “동북아 정세의 재편 과정에서 인종 경쟁의 활극이 시작되어 유원표는 森本藤吉의 대통합방론을 절실하게 지지하였는데 일본은 동아시아 연대보다는 한반도에 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작자의 ‘아시아 연대는 달레마에 봉착’하였다”(정환국, 앞의 논문, 213쪽)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30) 1883년 한문으로 발행된 초간본 『大東合邦論』은 본문만 14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당시 러시아, 중국, 조선, 일본 및 세계 정세를 서술하고 合邦의 방법, 합방 후 발생하는 이해 관계 등을 서술한 책이다. 森本藤吉, 『大東合邦論』(1883)(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 소장본)

31) 리파자오(李大釗), 「신아시아주의」,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19-20세기』, (주)문화과학지성사, 1997, 160~165쪽.

32) 박노자, 앞의 책, 170~171쪽. 특히 신채호는 아시아 연대를 국혼을 찬탈하는 자라고 혹평하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신채호,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대한매일신보』, 1909. 8. 8,10.), 최원식·백영서 편, 위의 책, 216~220쪽.

“今日 東洋에서 國家를 改革하야 文明에 進就하며 事物를 擴張하야 富強을 計圖하는 千事萬事가 究其實則 皆是客점에 不過은 者也 | 오 西勢東漸하야 強食弱肉하는 一款이 的是主점이 된다 홀지라. 然則 東洋人種이 一致團結하야 西勢東漸의 強食弱肉하는 禍患을 防禦함이 第一主점에 綱이 됨은 雖尺童이라도 瞭知할 터인데” (<몽견제갈량>, 99쪽)

인용문으로 볼 때 밀아자가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한 이유는 동양 인종이 일치단결하여 서세동점의 약육강식하는 우환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밀아자가 아시아 연대론을 펼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러일전쟁을 전후한 동아시아의 정세 판단 때문이다. 작품에는 동아시아의 이권을 둘러싸고 서양 제국주의 열강 및 일본의 침탈과 상호 견제, 충돌과 저지, 동맹과 조약 등 복잡한 세력 관계가 서술되어 있다. 특히 만주의 이권을 두고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대륙침략이 맞부딪친 전쟁의 원인을 밀아자는 인종경쟁으로 파악하고 있다. 러일전쟁에서 황인종인 일본이 백인종인 러시아를 물리치고 승리하던 날 밀아자가 일본보다 더 기뻐한 까닭은 일본 정부가 동남아를 불법 점유한 서양 세력을 차례로 물리친다면 동양평화가 영원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남아에서 백인의 식민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를 황인종이 단결하여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만약 동남아에서 황백인종이 서로 대결한다면 백인종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황인종이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밀아자는 일본의 한국 침략 야욕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하며, 또 일본이 조선을 침입함을 옹기 못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장래 미일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일본의 바른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다.³³⁾ 즉 현재 일본이 조선을 도와 국가의 형태를 온전하게 한다면 훗날 조선은 전국민이

33) 밀아자의 당시 정세 판단과 장래 예측은 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이 장래 이권을 두고 서로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하겠다.

힘을 합쳐 일본을 도울 것이라 한다. 또 일본의 안위가 청나라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주지시킨다. 미국이 구주와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하는 황백 대결이 발생할 경우 서양 세력은 중국의 영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데, 만약 일본이 청나라를 침입하여 수모를 준다면 중국은 같은 인종에게 수모와 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국가가 멸망당할지언정 백인종을 도와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정과 결과를 고려한다면 일본은 동종의 아시아 민족과 대결할 것이 아니라 연대를 취하여 서양 세력을 막아내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밀아자의 아시아 연대론은 일본의 침략 야욕을 간파하고 있으면서도 당시 국제 정세와 국가간 견제의 논리를 염두에 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조약이나 협정에서 우리의 힘과 자격이 상대와 대등할 경우 그 효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밀아자의 표현대로 지상공문이나 순상공답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아시아 연대론을 통해 일본의 침략야욕을 저지하고 장래의 변화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밀아지는 현실의 내부 모순을 개혁하기 위하여 관직과 제도를 바꾸고, 법률을 정비하며, 문학을 개량하고, 풍속을 개선해야 하는 네 가지 큰 강령을 시세의 급선무로 지적하고 있다.

관직과 제도의 개혁에서는 인물의 외적 평판보다는 실무 능력과 적합성을 개혁의 중요한 판단 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법률은 천자의 만아들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만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변발, 손톱 기르는 행위, 전족, 아편 등과 같은 나쁜 풍속은 제거하고 삼강오륜과 같은 좋은 풍속은 개량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가간의 경쟁 시대에 국가, 민족, 물질, 군사, 교육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문학의 개량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문학은 학문의 개념이다. 밀아자가 추구한 학문의 성격은 국방력 및 정치·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생존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 시대에 필요한 실용적인 학문과 시의성에 적합한 학문이다. 적자생존과 우승열패의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힘만이 생존을 보존할 수 있다는 세계 정세의 냉엄한 논리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밀아자의 위기 현실 극복 방안을 요약하면, 외적으로는 한중일 동양 삼국이 아시아 연대를 이루어 서세동점을 막아야 하며, 내적으로는 관직과 제도의 개혁, 법률의 제정과 준수, 좋은 풍속의 개량, 실용적인 학문과 시의에 적합한 학문 등을 추구하여 국가의 생존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신국민 양성과 평등주의의 모색 : 몽배금태조

<몽배금태조>는 “우리의 역사는 타국의 노적(奴籍)이다.(169쪽)”라는 무치생의 심각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 작품이다. 무치생은 조상이 남긴 영토를 보전하지 못하고 오랑캐의 것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전 시대의 영예를 회복하고 문명 개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금태조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설정하였다. 작품에서 금태조는 두만강변의 작은 여진 부락에서 출발하여 힘을 북돋우고 흥기하여 요를 멸하고 북송을 취하여 중국 천지의 주권을 장악한 인물이다. 작가는 금태조의 강력한 힘과 용맹함, 과감성과 자신력, 승자에 대한 선망 등의 이유로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방책으로 금태조를 설정하였다고 판단한다.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금태조와 무치생의 대화를 통해 볼 때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이 우선이라고 했다. 즉 중국 중심의 노예근성³⁴⁾을 뿌리뽑고 조선 역사를 교육하

34) 의관과 문물의 중국화, 시서와 예악의 중국풍, 군자국과 소중화이식, 유학의 장구 암송과 명나라의 연호 사용 등 그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중국의 것이라면 모두 선망하는 태도는 노예근성이라고 하였다.

고 조선 민족의 자강 자립의 정신을 길러야 하며, 허식의 문장으로 채워진 공허한 학문을 배척하고 실학을 실천하여야 하며, 태만·문약·허위를 배척하고 근로·武強·진실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이 남의 식민지가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전국민, 특히 양반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없고, 백성들에게는 군포의 폐단이 심각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국민된 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민 정신으로서 실무를 강조하여 독립의 자격과 자유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불량한 정치를 개선하고 탈세를 방지해야 하며, 관리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안정시켜 인구를 늘려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³⁵⁾ 이렇게 해야 인종경쟁의 시대에 도태되는 화를 면하고 생존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진화론의 수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민족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할 중추 계층은 누구인가. 작가는 일신의 절개와 결백을 지키기 위해 은일하는 상류층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하고,³⁶⁾ 교육을 받은 신국민이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했다.

“현 시대의 각 민족이 그 지식과 세력의 우열로써 생존과 자멸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 세력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또 지식은 학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까닭에 교육이 발달한 민족은 생존하고 교육이 쇠퇴한 민족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귀가 있는 자면 모두 듣는 것이요, 눈이 있는 자는 모두 보아 아는 것입니다.”(<몽배금태조, 189쪽)

무치생과 금태조는 대화를 나누면서 특히 청년 자제를 교육하여 신국민으로 양성하여야 하며, 이들이 민족 생존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35) <몽배금태조>, 앞의 책, 186~189쪽.

36) 청류에 의지하는 것으로 명예를 도둑질하는 자, 자신의 이름을 중히 여겨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불충에 있어 동일하며 이는 황금에 눈이 멀어 높은 지위를 좋아하며 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다. 이를 위해 ‘학교’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정신 교육, 모험 정신, 단결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정신 교육의 일환으로 금태조의 상무정신의 사적을 예로 들었다.³⁷⁾ 여러 국가가 사활을 건 생존 투쟁의 현실에서 상무적인 정신력의 풍토를 본받아 역경을 헤쳐나가길 바라는 점에서 작자는 금태조의 사적을 가져 온 것이다. 전통적 학문에 대한 애착, 용감성의 부족 등과 같은 나약함을 벗어나고 금태조의 사적에 언급된 것처럼 군사주의의 체득, 곧 용감성을 중시하는 상무정신의 배양이 위기 현실의 타개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모험 정신과 과감한 실천력이 있어야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면서 세계사에서 활약하였던 콜롬부스, 피터 대제, 나폴레옹, 링컨 등 여러 인물의 사적을 사례로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모험 정신으로 난관을 뚫고 이겨나가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인물이다. 또 단결된 정신과 단결된 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개인보다는 단체의 힘이 자보자존의 한 방안이 된다. 단결력 역시 학교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해상보통학교를 만들어 좁고 편협한 마음을 씻을 수 있으며, 대륙보통학교를 만들어 신체를 단련시켜 연약한 성질을 개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광대한 학교를 건설하고 고등교사를 초빙하여 훌륭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나 일본처럼 강권주의로 약소국을 침탈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사회진화론적 세계가 현실일망정 그것이 이상이 아님을 간파하고, 오히려 강권주의를 배척하고 평등주의를 모색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오늘날은 세계의 큰 기운이 평등주의로 기우는 시대(190쪽)”, “오늘날은 강권주의와

37) 금태조는 상대방의 무례한 침탈에 굴복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대항하였으며, 부족을 통합할 때 먼저 인재를 규합하여 얻은 뒤 천하에 진출할 뜻을 품었고, 천하의 강대국인 요나라와 문명국인 송나라에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숭배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례로 나열되고 있다. <몽배금태조>, 201~202쪽 참조.

평등주의가 바뀌는 시기(213쪽)”와 같이 다가올 시대가 평등주의 사회임을 진화 발전의 이치를 들어 주장한다. 이러한 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다수의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지금은 세계 각국이 모두 그 전체 민족의 힘으로 경쟁하는 시대인즉 민족 단체의 힘이 아니면 다른 민족에 대적할 수 없고 승리를 거둘 수 없다(204쪽)”고 하였다. 이 역시 앞에 제시하였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각자의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평등주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적자생존의 냉엄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의 정신 교육, 모험 정신, 일치된 단결력 등을 통해 신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신국민이 교육을 모범적으로 받음으로써 현실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그 대응 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진화론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실 대응 논리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1900년대 무렵에 창작된 몽유 형식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의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작품별로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검토하고 현실 대응 논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겠다.

먼저, 현실 인식이나 대응 방식에 차이가 생긴 원인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조선 왕조의 내부 모순을 판단하는 태도에 있어, 김광수는 신분 문제나 관리의 부패상 및 개인적인 처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나 성리학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유원표나 박은식은 조선 왕조가 위기에 빠지고 외세의 침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제의 원인으로 성리학을 지적한다. 이들은 성리학의 비현실성과 추상적인 관념성을 부

정하면서 현실에 직접 쓸모가 있는 실용적 학문을 더 중시한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판단함에 있어 김광수가 피상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 유원표는 비판적인 태도로 세계 정세의 변화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박은식은 제국주의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으나 유원표보다는 정확하지 않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데에는 이들의 生長 배경과 활동에서 기인된 듯하다.

김광수는 문집의 「勤業契」序에서 事業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인에 둔 만큼 유학을 세계관의 토대로 삼았다. 몽유록을 창작할 때 표기문자로 국한문을 선택하지 않고 한문으로 창작한 점, 작품에서 일제의 침입을 두고 제일 먼저 하늘에 호소했던 점은 유학적 사유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만하가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유학 체제를 맹목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수용한 것은 아니다. 기존 학설에 회의를 품고 스승에게 질문한다든지,³⁸⁾ 작품 내의 다양한 사상적인 편력 등을 통해 볼 때 근대 서양 사상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³⁹⁾ 특히 작품내에서 민영환과 조병세가 절의를 위해 맹목적으로 죽는 태도를 비판한 대목, 스승인 송병선이 망해가는 국가를 보면서 대책 없이 한탄만 하는 대목, 최익현이 일제에 대항하는 세 가지 방책을 말할 때 하나도 쓰일 것이 없다고 비판한 대목 등으로 판단할 때 아무리 우국지사라 할지라도 그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비판적 태도를 서슴없이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세계 정세 파악에는 그다지 밝지 못했던 것 같다. 작품에서 서구 문물의 이점만 제시했을 뿐 제국주의가 지닌 침략의 본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원표는 승문원 이습관 재직, 군인, 언론인 등 특이한 경력을 지닌 인

38) 김광수는 虞祭에 대해 회의를 품고 스승 송병선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다. 연재는 답서에서 사계와 우암이 이미 논한 바가 있는데 어찌 감히 회의를 품는 것이냐며 그 태도를 나무라는 어조의 답서가 『淵齋集』에 보인다.(宋秉璿, 「答金汝潤光洙別紙」, 『한국문집총간 329; 淵齋集』, 민족문화추진회, 2004, 196쪽)

39) 박중훈·서신혜, 앞의 책, 331쪽.

물이다.⁴⁰⁾ 그는 한문 및 신지식이 풍부하였으며, 특히 사대교린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승문원에 근무하면서 한국 및 동서양 사회의 정세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작품에서 세계 정세의 변화를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었으며, 그 나름대로 전망과 대응책을 모색한 것이 이 몽유록 작품이 아닌가 한다. 김광수에 비해 구 문화로 지칭되는 성리학을 개명된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본 이유도 세계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박은식은 성리학적 사유에서 출발하여 진보적이며 비판적 지식인의 길을 걸었던 근대의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상을 끊임없이 모색한 인물이다.⁴¹⁾ 그는 성리학의 이념 체계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유럽의 소극성, 독선, 문약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작품에 이러한 한계를 상세하게 서술한 뒤 적극성, 국민주의, 용기와 모험 정신으로 대표되는 서구 열강의 강점들을 파악하여 <몽배금태조>에 이 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적 단결과 모험 정신을 강조한 교육으로 당대 위기 현실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왕조의 이념인 성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되 유원표가 중국의

40) 유원표의 활동에 대해 기존 논의의 오류가 있어 바로잡는다. 기존 논의에서는 유원표가 1900년부터 군직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고종 16년(1879년) 5월 2일 유원표에게 承文院 肄習官에서 업을 연마하게 한 기사가 보이며(『승정원일기』 고종 79, 민족문화추진회, 1997, 11~12쪽), 또한 고종 32년(1895년) 윤5월 6일 軍部에서 유원표를 參尉에 임용하여 공병 제4대대부에 편성시킨 기록이 있다.(『승정원일기』 고종 168, 86~88쪽) 이로 볼 때 유원표는 사대교린을 담당하는 승문원에서 활동하다가 1895년부터 군직으로 이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한자강회월보』 1906년 12월 25일 유원표가 신입회원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마 이 해에 군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언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유원표의 沒年을 몰라 未詳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동아일보』 1929년 12월 6일 기사에 유원표가 1929년 12월 1일 개성에서 사망하여 경기도 양주 노해면 방학동에 장사지낸다는 보도가 있다. 이로 볼 때 유원표는 1929년에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박은식의 사상 전환과 활동에 대해서는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2 참조.

사정을 들어 조선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면, 박은식은 보다 직접적으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한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유원표가 승문원에 근무하였고 군직이지만 관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판이 곤란하였다면, 박은식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후 조선 왕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이 시기 몽유록이 지닌 의의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학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세 편의 몽유록 작가들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서부터 한일합방의 국권 상실에 이르기까지 위기 현안들을 작품 속에 제기하여 문제 발생의 원인을 따지고, 당대 위정자들의 책임을 비판하기도 하며, 작가 나름대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적극적인 현실 참여와 현실 비판이 가능했던 것은 몽유록이 지닌 갈래적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 현실에 대처하는 방안을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의라 할 수 있다. 물론 당대 글쓰기의 대표적 매체라 할 수 있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도 이런 문제가 언급되고 해결 방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체의 특성상 특정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장황하게 다루기에는 여러 모로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꿈이라는 서사 장치를 마련하고 대화와 토론이라는 서술 전략을 구비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완결된 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몽유록이 지닌 장점이 아닌가 한다. 작품 전체를 두고 판단할 때 문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룬 내용의 전달 방식이나 독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는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작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방을 설정하여 토론과 설전을 주고받음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화의 상대방은 무명의 보잘것없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사람을 설정하여 그 논리나 주장의 잘못됨을 반박하면서 작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서

술자를 내세워 자기 주장의 타당함을 펼치는 서술 전략이 성공의 요인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몽유록의 현실 인식이나 대응 방식의 한계점으로 다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광수는 몽유록에서 “지금 육주 만국은 평화의 회합을 열고, 공공의 법을 만들어 비록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라고 말하지만 선공후사를 사실로 하여 강함을 누르고 약함을 복돋우고 있습니다.”⁴²⁾라고 하면서 서구 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김광수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그렇기에 서구 문물의 편리함을 강조하고 그 문명의 수용을 바람직하게 여긴 것이다. 이에 비해 유원표나 박은식은 작품을 통해 각각 “萬國公法과 東洋平和와 嚴正中立은 挽近 西洋 外交家의 狡猾한 誣說(<몽견제갈량>, 82쪽)”이니, “평화재판이니 공법답판이니 하는 문제는 강권자와 우승자의 이용물에 불과한 것(<몽배금대조>, 176쪽)”이라 하면서 서구 및 일본의 침략 야욕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그런데 위기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원표는 작품에서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였다. 아시아 연대론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많은 의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주장하는 아시아 연대론은 한국 병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작품 내에서 森本藤吉의 대동합방론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장으로 볼 때, 유원표가 아무리 일본의 침략 야욕을 간파했다 하더라도 아시아 연대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국민 스스로가 실력 배양에는 힘쓰지 않고 외교 교섭이나 타국의 신의에 바탕하여 서구 열강의 침입을 막아보겠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박은식은 외세를

42) 『문집』, 35쪽. “現今六洲萬國, 開平和之會, 設共公之法, 雖曰弱肉強食, 優勝劣敗, 然其實先公後私, 抑強扶弱.”

이용한 국가의 자보자강을 배격하고 국민의 단결력을 주장하였다. 세계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및 평화재판, 공법재판 등을 볼 때, “나의 자격이 타인과 서로 동등하지 않고는 어떠한 고통과 억울함이 있어도 신원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이다.<몽배금태조, 178쪽>”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강의 힘을 기른다는 것은 곧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승열패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문명개화의 힘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은식의 주장은 외세를 이용한 국가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는 유원표의 아시아 연대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현실 대응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은식은 우승열패라는 근대의 사회진화론을 문명개화의 수단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우승열패 역시 제국주의라는 특정 시대의 지배계급의 원리라는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이미 국권을 상실한 뒤에 나온 방책으로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앞길이 놓여 있었다. 외세의 충격과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평등주의 모색이라는 논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인내의 세월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4. 마무리

이 글은 1900년대 무렵에 창작된 세 편의 몽유록을 대상으로 위기 현실에 대처하는 작가의 현실 대응 방식 및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실 인식의 방식은 몽유담 내에서 작자의 분신인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내세워 대화와 토론으로 현실의 위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선 내부의 부조리한 측면과 외부의 서구 열강 및 일제의 침탈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지식인은 각자가 처한 위치와 조건에 따라 그 대응

양상을 달리하여 각 작품에 구체화시켰다. 김광수는 일본의 침탈에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근대 서구 문물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그 장점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녔다. 유원표는 세계 정세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였으며, 일본의 한국 침탈을 경계하면서도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였다. 박은식은 국권 상실을 완전히 경험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한 결과 교육을 통하여 신국민을 양성하고 평등주의를 모색하였다.

이 시기 몽유록 작품은 문학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작품 전체로 판단할 때 문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룬 내용의 전달 방식이나 독자를 설득시키기 위한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는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광수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원표는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외교 교섭이나 타국의 신의에 바탕하여 서구 열강의 침입을 막아보겠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박은식은 우승열패라는 근대의 사회진화론을 문명개화의 수단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우승열패 역시 제국주의라는 특정 시대의 지배계급의 원리라는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세 작품에 드러난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텍스트들이 지닌 독자성이나 역동성은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였다. 이 점은 추후 보완하여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金光洙, <만하몽유록>, 『晩河先生文集』(한국역대문집총서 376, 경인문화사, 1990)
- 김광수 저/박종훈·서신혜 역주, 『만하몽유록』, 한양대 출판부, 2005.
- 박은식, <몽배금태조>,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집위원회 편, 『백암박은식전집』 제4권, 동방미디어, 2002.
- 劉元构, <몽견제갈량>(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문학총서Ⅱ:역사·전기소설』9, 아세아문화사, 1979)
- 宋秉璫, 『淵齋集』(『한국문집총간 329; 연재집』, 민족문화추진회, 2004)
- 『국역 승정원일기』(민족문화추진회, 1997·2002)
- 森本藤吉, 『大東合邦論』(1883)(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 소장본)
-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우익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2, 1~412쪽.
- 김미선, 「근대 전환기 몽유 양식의 창작방법의 변주 양상」, 『한국언어문학』 제7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181~218쪽.
-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0, 1~818쪽.
-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5, 1~512쪽.
- 박학래, 「天人之際, 인간 삶의 지표와 이상」,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140~166쪽.
- 배삼주, 「유원표의 『몽견제갈량』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1~100쪽.
- 서신혜, 「만하몽유록에서 작시와 유람의 기능」, 『어문논총』 4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279~303쪽.
-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2, 1~320쪽.

-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1~436쪽.
- 심재숙, 「〈몽견제갈량〉의 창작의도와 주제의식」, 『우리어문연구』 18집, 우리어문학회, 2002, 173~205쪽.
- 이병직, 「〈만하몽유록〉 연구」, 『문창어문연구』 제41집, 문창어문학회, 2004, 5~31쪽.
- 장효현, 「애국계몽기 고전장편소설의 역사현실 대응-〈鄭氏福善錄〉과 〈晩河夢遊錄〉」, 『어문논집』33,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4, 33~64쪽.
- 정선태, 「‘국민정신’ 형성의 정치적 상상력-『몽배금태조』론」,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 소명출판, 2003, 47~74쪽.
- 정여울, 「20세기 초 몽유양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113쪽.
-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대외인식의 단상-『몽견제갈량』의 경우」, 『민족문화사연구』 23집, 민족문화사학회, 2003, 201~224쪽.
- 조상우, 「〈몽배금태조〉에 표현된 현실인식과 이상세계」,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169~194쪽.
- 조용호, 「김광수의 〈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제11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57~396쪽.
- 한상일,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대륙낭인과 대륙팽창』, 도서출판 오름, 2002, 1~370쪽.
- 황재문, 「애국계몽기 몽유록과 힘의 윤리」, 『규장각』 3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219~242쪽.
- 리따자오(李大釗), 「신아시아주의」,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19-20세기』, (주)문학과지성사, 1997, 160~165쪽.

<Abstract>

The reality recognition and confronting way
through dreaming story in the 20th century

Lee, Byeong-Jik*

There were many arguments to recognize the crisis that the Western countries had invaded the Eastern countries in the lat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ies. They tried to find out the solutions.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se arguments through dreaming story which was created in the 1900s.

The narrator, the writer's other self tried to comprehend the real danger through discussion and argument by a particular person in a story. This was the ways to cope with the urgent situations in those days. The urgent situations were the inner absurd aspects in Choseun Dynasty and many invasions by western countries, including Japan. Kim Gwang Sue had very critical attitude toward Japan Invasion. but he had positive attitude about western modernization and accepted them without any criticism. You Won Poo made an accurate judgement about the world's changing wave. So he claimed that not only Asian countries should keep cooperative power against the Western power, but also the armed forces should be put on a special alert against Japan. Park Eun Shik came to Manju as an exile after he had experienced the loss of national rights. He took time for self-examination about the direction which Korea would move

* Busan Geumseong High School teacher.

forward. Therefore, he made some conclusions that they had to produce the new people and create the equal opportunity in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ree people's situations and activities, they had different styles of reality recognition and confronting ways. It was clear that they had some limitations. But they got some positive valuation because they participated in reality positively through literal works and designed narrative strategy to persuade readers through conversation.

Key Words : dreaming story, reality recognition, confronting way, modernization, Asian countries' cooperative power, new people.

■ 논문접수 : 2011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11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1년 12월 12일